



# 캐나다 한인 여성회 소식지

##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News Letter



Volume 59 September 2004

### 2004년 한인 여성회의 새로운 프로그램

#### 가정폭력 방지 지역 프로그램 - 온타리오 법무부 피해자 서비스 부서 지원

캐나다에서 폭행은 위법이다. 폭행에는 여러가지로 분류되어 있지만 육체적 폭행, 성폭행, 폭력적인 위협등이 가장 일반적인 폭행으로 간주된다. 그 이외의 다른 폭행으로는 정신적 학대, 언어 폭력, 재정 학대, 영적 학대 등이 있다. 폭행이란 단어는 법적 용어로서 “가정 폭력과 여성 학대”를 포함한 모든 학대를 지칭한다. 폭행을 범한 사람은 캐나다 형법에 의하여 체포되거나 감금될 수 있다. 폭행은 많은 경우 밝혀지지 않은 채 우리 주변에서 암암리에 행해지고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폭행 피해자는 여성과 어린이들이다. 더더욱, 이 피해자들은 폭행으로 인하여 생긴 고통, 개인적 사회적 고립 등 여러가지 일들을 혼자 겪어야 하는 처지에 놓여지게 된다.

가정 폭력의 근절을 위한 노력으로 여성회는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서비스를 정부와 다른 주류단체들과 연결을 지어 오랫동안 해오고 있다. 올해도 가정 폭력 방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역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 많은 한인 동포들이 종교 단체에 소속되어 있음을 고려하여 이번 여성회에서 시도하는 프로젝트는 한인 동포 사회의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가정폭력을 파악하는 기본적인 방법과 그에 따른 피해자와 그 가족을 돕는 방법에 대하여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이다.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서비스에 대한 요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고 더욱이 문화, 언어적으로 적합한 서비스의 요구가 필요한 것을 볼 때, 동포 사회의 지도자들이 가정 폭력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을 갖추어 제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도움을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회의 사명은 여성과 그 가족들, 그리고 소외되고 약한 사람들에게 각 개인의 삶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종교 단체와 다른 사회사업 단체 간에 상호 유익을 도모하는 관계를 형성하여 전체적으로 동포사회에 유익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기를 바란다. 지속적인 후원에 감사를 드리고 파트너쉽으로 같이 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단체에도 미리 감사를 드린다.



김정실

가정폭력 방지 지역 프로그램 담당자



### 캐나다 한인 여성회 기금 마련의 밤

날짜 및 시간: 2004년 10월 30일(토요일) 오후 6:00시

장소: 토론토 한인회 회관

1133 Leslie Street (Eglinton/Leslie 북동쪽)

저녁식사와 함께 즐겁고 유익한 시간을 준비하였으니 많이 참석하셔서

한인 여성회 기금마련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티켓은 한장 \$30.00, 두장 \$50.00

문의: 한인 여성회 416-340-1234



### 주요행사

- 제20차 정기 총회가 7월 29일 저녁 6시 한인 여성회 세미나실에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별순서로 김영순선생님의 “Well Being” 세미나가 있었다.
- 7월 17일 토요일 Sunnybrook Park에서 Self-help group client들과 그 자녀들을 위한 야유회로 서로 격려하는 좋은 시간을 보냈다.
- 6월 26일 토요일 오전 8:30부터 여성회 기금마련을 위한 Rummage Sale이 연합교회 앞마당에서 여러 자원봉사자들과 여성회 이사님들의 수고로 경비를 제하고 \$874.75 기금을 마련했다.

### 정규 프로그램

- **취업 세미나**  
5월 26일 이력서, cover letter 쓰는법에 대하여(1)  
7월 22일 이력서, cover letter 쓰는법에 대하여(2)  
7월 14일 통역원이 되려면...
- **정착 세미나**  
“자녀를 위한 영양있는 도시락 만들기”  
기간: 7월 8일  
강사: Bev Brochest
- **성인을 위한 한국어반**  
기간: 9월 7일 ~ 현재 진행중  
매주 화요일 오후 7:00 ~ 9:00  
기초반, 중급반, 고급반으로 나누어 한글학교 협의회가 기증한 교과서로 수업이 진행되고 있고 이번 학기는 더 이상 등록을 받고 있지 않다. 새로 등록을 원하면 2005년 1월에 시작 될 한국어반에 등록할 수 있다.
- **경제 용어반 (영어로 배우는 캐나다 경제)**  
기간: 8월 9일부터 4주간 매주 월요일 오후 6:00 ~ 8:00  
강사: Martin Choi (고등학교 선생님)
- **ESL class for VAW Clients**  
기간: 7월 15일 ~ 8월  
강사: 허영임
- **엔지니어 영어 교실**  
기간: 9월 13일 ~ 현재 진행중 매주 월요일 오후 6:00  
강사: Mr. Boze Zeken (P. Eng.)
- **그림 교실**  
기간: 매주 목요일 오후 2:00(지금 등록하셔도 됩니다)  
강사: 화가 이해선 선생님

### 유방 건강 프로그램

#### 나의 건강은 내가 직접 챙겨야...

제가 유방 건강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어서 그런지 요즘 TV, 신문등을 통해 유방 건강에 대한 기사가 부쩍 많이 눈에 띄고, 한인 여성분들의 유방 검진에 대한 관심과 참여가 높아진 것 같아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유방암은 여성이면 누구나 다 관심을 가지고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다행히도 온타리오에는 50세 이상의 여성분들이면 가정의를 거치지 않고도 무료로 정기적인 유방 검진을 받으실 수 있는 프로그램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온타리오 유방 검진 프로그램 (Ontario Breast Screening Program)은 보통 OBSP: 오비에스피라고 불리며, 검진에는 유방 촉진 검사, 유방 X선 사진 검사(메모그램)가 포함됩니다.

며칠전에는 유방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노스욕에 있는 OBSP 클리닉에서 몇분의 한인 여성분들을 모시고 제가 직접 이 OBSP 프로그램을 겪어 보게 되었습니다. 클리닉에서 근무하는 간호사 및 방사선 의사는 모두 여성 분들이며, 친절히 하나씩 안내를 해주시더군요. 클리닉에 들어가서 접수하고 본인임을 확인한 후에는 간호사가 안내한 방에서 가족력 및 신체상황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는데 여기까지 제가 통역을 위해서 배석했습니다. 그 다음 실제 유방 촉진 검사를 위해서 참여자는 속옷을 벗고 상의만 걸치며, 훈련된 간호사가 유방 촉진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이 검사는 약 15분 정도 소요가 됐다. 그리고 나서는 메모그램을 찍기 위해 X선 사진실로 안내가 되고 여기서 실제로 X선 사진 촬영을 받았습니다. 이 검사도 약 15분 정도가 걸렸습니다. 간호사는 검사 결과가 2주 정도 후에 집으로 보내지고 가정의에게도 그 결과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또한 별 문제가 없으면 2년 후에 집으로 편지를 다시 보내 유방 검진을 받을 때가 됐다는 것을 알려 준다고 친절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검진을 알려주는 편지가 오면 전화를 걸어 예약을 하고 검진을 받으면 되는 것이죠.

이민자 여성들은 언어 문제, 문화적인 문제, 시간 문제 등으로 자신의 유방을 검진하는 것에 소극적이고 소홀한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회의 유방 건강 프로그램은 언어와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장벽들을 넘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유방 검진은 총 한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는데, 이년에 한시간의 투자로 자신의 유방 건강을 지킬 수 있다면 투자해 볼만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최정희  
유방 건강 프로그램 담당자

#### 워크샵 일정

- 8월 29일 밀알 교회
- 8월 31일 복합문화 센터
- 10월 16일 영락 교회 예정
- 10월 17일 바나바 교회 예정
- 11월 6일 큰빛 교회 예정



## 여성회 소식

- 여성회의 최기선, 신복실이사과 교육부 정착 상담원 안윤화씨가 Brampton에 위치한 한국전쟁 참전 용사비를 참배하였다.
- 여성회 김정실 취업/정착 상담원이 MAG program coordinator와 Social Service Coordinator로, 오병천씨가 취업/정착 상담원으로 9월부터 일하게 되었다.
- 8월 이사회에서 제 20 차 한인 여성회 회장으로 유상희씨를 선출하였다. 유상희 회장은 한인 2세로써 현재 흥폭 건강센터의 공중 보건 홍보담당으로 일하고 있으며 여성회 외에도 여러 한인 단체들에 소속되어 한인 1세와 2세 사이의 큰 교량 역할을 하고 있다.
- 6월부터 여성회 사무실 2층의 사무실 하나를 ALPHA United Church에 임대하기로 했다.

### 한인여성회 이사(교육) 훈련/전략 계획

지난해부터 여성회는 5차년계획 수립의 시작으로 단단한 기반을 만들기 위한 일을 착수했다. 그리고 그 전략의 예비작업으로 다수의 기금 마련 행사, 운영비 확보 방법 강구, 자선단체 자격 회복 준비 등을 했다. 올해도 5차년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작업의 일환으로 8월 말부터 이사와 직원들의 훈련을 시작했고 10월에 한번 더 있을 예정이다. 이 훈련은 소수의 새로운 이사들이 영입되었으므로 Management Advisory Services의 외부 컨설턴트를 무료로 초빙해서 구/신 이사, 직원 들에게 행정, 관리, 의무, 책임등에 대한 교육이다. 이사 교육이 끝난 직후에는 6개의 각 위원회에서 1년 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서의 구체적 실행 방안을 마련해 5차년 계획, 더 나아가서는 여성회의 사명/임무를 실현화하는 일을 착수 할 예정이다. 많은 일들이 실행되고 있지만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다. 지금 여성회는 신나게 자라나는 발전의 시기에 있다. 많은 지지와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실행되어가는 과정을 계속 여러분들과 나눌 계획이다.

유상희  
캐나다 한인 여성회 회장



## 궁금합니다

### 캐나다 시민권 취득에 관하여...

#### 신청자격: 18세 이상의 성인

- 캐나다 영주권인 자
- 시민권을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지난 4년간 적어도 3년은 캐나다에서 거주한 자
- 캐나다의 공식언어 (영어/불어) 중 적어도 하나는 구사할 수 있는 자
- 시민권 테스트를 통과한 자 (캐나다에 대한 지식 및 캐나다 시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지식)
- 60세 이상의 노인은 시민권 테스트 면제

#### 17세 이하의 아이

- 부모가 시민권자이거나,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같이 아이의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즉 부모가 영주권자이면 17세 이하의 아이는 혼자 시민권을 신청할 수 없다.
- 아이는 영주권자이어야 한다.
- 위의 조건이 충족되면 캐나다에서 거주를 3년간 하지 않았어도 시민권 신청이 가능하다.
- 17세 이하의 아이는 시민권 테스트 면제 (하지만 14세 이상의 아이는 어른과 마찬가지로 시민권 선서를 하여야 함)

**신청방법:** 한인 여성회에서는 시민권 신청서를 신청하는 일부터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직접 신청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여성회로 연락주십시오.

보통 신청서를 보내고 나면 시험을 보기까지 약 10개월 정도 걸리고 "Notice to Appear for a Citizenship Test" 라는 편지를 받게 되며 이 때 테스트를 받게 되는 날짜와 시간을 알게 됩니다. 시험이 끝나고 2개월정도 안에 선서식을 하게됩니다.

**신청하는데 드는 비용:** 18세 이상의 어른 \$200.00  
7세이하의 아이 \$100.00

**선서식:** 시민권 테스트에 통과하고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Notice to Appear to Take the Oath of Citizenship" 이라는 편지를 받게되면 선서가 행해지는 장소 및 날짜, 시간을 알게 됩니다.

#### 시민권 신청 관련 website

주소 변경 신청이나 그외 <http://www.cic.gc.ca>

시민권 신청에 대한 질문과 대답을 한국어로 원하시면, 한인 여성회 website <http://www.kcwa.net>

#### 시민권 시험 준비

Public library에 영어로 시민권 시험을 위한 준비반이 있으며 한인 여성회에서는 한국어로 내용을 이해하며 시험 준비하는 시민권 시험 준비반이 현재 진행중에 있다.

- 6월 8일부터 5주간 강사: 허영임
- 8월 3일~ 8월 11까지 일주일간 시험준비 속성반 강사: 허영임
- 9월 22일부터 10월말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6:00 강사: 이세라



### 기부금 및 자원 봉사 현황(존칭은 생략) (2004년 5월—2004년 9월)

- 일반 기부자  
최정현, 안윤화, 기독교 여성회 연합회, 유상희, 김동균회계사,  
김은주, 신안실, 2무명
- 2004년 회원 되신 분  
김광순, 김유순, 김미혜, 김한나, 신순자, 강영옥, 이영희, 이유덕,  
양송현, 오유정, 정순품, 홍영숙, 정경애, 이선희, 최테레사,  
허영임, 정수정
- 고통분담 기부자 - 최정현, 이미아,
- 자원 봉사자 - 최연순, 이은경, Bev Brochest, Martin Choi,  
Boze Zeken, 허영임, 강영옥, 이해선, 이향배, 김양숙, 이세라
- Rummage sale 자원 봉사자 - 차상범, 차인숙, 강명숙, 정성목,  
정세인, 박성재, 최기선, 최성학, 안귀란, 이정준, 신복실, 원스텔라,  
장제니퍼, 김조유경, Michael, 박정애, 이양순, 이규희, 한귀남,  
유상희, 오병천, Jady Sit, 하영리, 이영선, 정경희, 김정실, 최앤드류
- 물건 기부자 - 한글학교 협의회, 성인 장애인 공동체,  
Legg Mason Canada, 그외 다수.



### 제 20 대 한인 여성회 이사

- 회 장: 유 상희  
이 사: 최 성학 (부회장겸 섭외위원장 )  
김조유경(서기)  
김 진실 (회계)  
원 스텔라 (사업 협동위원장)  
장 제니퍼(사업 협동위원장)  
신 복실 (재정 위원장)  
이 정준 (총무 위원장)  
안 귀란 (회원 위원장)  
박 숙훈 (이사)  
신 정순 (이사)  
양 송현 (이사)  
신 순자 (이사)  
김 지인 (이사)  
최 경애 (이사)  
유 정자(이사)

### “별들은 호소하네”

형제여 자매여  
눈물 어린 내 님이여  
반세기 이산 가족  
그리움에 이끼 덮여  
한 맺힌  
허리의 상처  
언제나 아물려나  
  
별들도 울었다네  
이산 가족 금강산에서  
한 핏줄 벽찬 포옹!  
그러나 또다시  
비정한  
이별의 통곡  
언제나 다시 만나리  
  
별들도 호소하네  
용천 역 폭발 참사  
슬픈 소식 가슴 저머  
지구촌 형제 자매  
한 아름  
도움의 손길  
너도 나도 다 함께  
  
형제여 자매여  
우리 모두 가슴 열어  
손에 손 뜨겁게 잡고  
가까이, 더 가까이 모두 함께  
아이들 노래소리를  
조용히 들어보자  
지구촌 평화의 노래 소리를!  
  
신복실(한인 여성회 이사)

**캐나다 한인 여성회**  
KCWA Family and Social Services  
27 Madison Ave.  
Toronto, ON M5R 2S2  
Tel: 416-340-1234  
Fax: 416-340-8114  
Website: www.kcwa.net  
E-mail: kcwa@kcwa.net

### 캐나다 한인 여성회 사명

캐나다 한인 여성회는 1985년에 여성과 가족문제에 관심을 가진 여성들에 의해 발족된 비영리 봉사 단체입니다. 캐나다 한인 여성회의 목표는 문화적 특성을 고려한 서비스를 통해 한국계 이민자와 지역사회 전반의 소외된 사람들이 폭력, 빈곤, 불평등에서 벗어나 성공적으로 캐나다 사회에 통합, 정착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돕는 것입니다.